

급성기 교통사고 상해 환자의 한약 복용에 관한 인식 조사

김수연* · 오승주* · 황규현* · 진은석* · 염선규* · 김동우† · 김석우† · 진소리† · 박무진† · 김은송† · 이현석†
분당자생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방내과†, 침구과†

A Survey on Acute Traffic Injury Patient's Perception on Korean Herbal Medicine

Soo-yeon Kim, K.M.D.*, Seung-ju Oh, K.M.D.*, Kyu-hyun Hwang, K.M.D.*, Eun-seok Jin, K.M.D.*, Sun-Kyu Yeom, K.M.D.*, Dong-woo Kim, K.M.D.†, Seok-woo Kim, K.M.D.†, So-ri Jin, K.M.D.†, Mu-Jin Park, K.M.D.†, Eun-song Kim, K.M.D.†, Hyun-seok Lee, K.M.D.†

Departments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Korean Internal Medicin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undang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이 연구는 2020년도 분당자생한방병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됨.

RECEIVED September 15, 2020
REVISED October 4, 2020
ACCEPTED October 6, 2020

CORRESPONDING TO

Soo-yeon Kim,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Bundang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13 Hwangsaeul-ro 319beon-gil, Bundang-gu, Seongnam 13590, Korea

TEL (031) 789-0719
FAX (031) 789-0777
E-mail tus11227@jaseng.org

Copyright © 2020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Objectives This survey study is designed to check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Korean herbal medicine in patients suffering from acute traffic accidents.

Methods From May 1 to 20, 2020, patients who visited the hospital within 7 days after the accident and received prescription of Korean herbal medicine for the first-time symptoms were selected. Survey was conducted 10 days after the first visit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Korean herbal medicine and expected to be used as a prior study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medicine led by Korean herbal medicine.

Results Most patients answered that they were aware of the prescribed Korean herbal medicine's dosage and treatment effects. 65% of the patients said they would like to receive other forms of prescription if possible. Most patients answered that portability is convenient and tastes better than normal. 48%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it was the first to time to take Korean herbal medicine, and 68% said that they were willing to take the Korean herbal medicine later. At the time of the first visit, the health condition assessed using EuroQol visual analogue scale (EQ-VAS) was 46.84, but 10 days after the treatment began, it increased significantly to 61.93.

Conclusions The improvement of symptoms and high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medical services contributed to the patient's willingness to visit the Korean medicine hospital again and to respond that they were willing to take further medication. EQ-VAS elevation suggests that overall patients'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have improved since treatment.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65-178)

Key words Traffic accidents, Herbal medicine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9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¹⁾에 따르면 2018년도 의과,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

합산은 전년 대비 9.78% 증가했다. 그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한의과로 전년 대비 28.76%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환자 수는 연 평균 3.5% 증가하였는데, 의과가 연평균 1.06% 증가한 것에 비해 한의과는 연평균 21.2% 증가하여 한방 의

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과 진료비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총 진료비 중 23.0%를 차지하던 한의과 진료비가 2019년 상반기에는 41%를 넘겨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1조 446억 원 중 4,288억 원을 차지하였다. 위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통사고 상해 환자 치료에 있어서 한방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상해 환자는 가속·감속에 따른 연조직 손상, 타박, 골격 손상 등의 전신적 증후²⁾가 나타나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체 증상과 더불어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다양한 한방 의료기술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항목에 포함되었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한 교통사고 상해 환자는 한의사의 진단 하에 한약, 침, 약침, 부항, 뜸, 한방물리요법, 추나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중 한약은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 面色, 脈, 舌苔 등을 통한 망문문절 및 협진 진단의 과정을 거쳐 환자의 교통사고 후 발생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된다⁴⁾.

Kim과 Choi⁵⁾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는 염좌 및 긴장 치료에 한방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Kim 등⁶⁾은 편타성 손상에 대한 침 치료의 유효성을 보고한 바 있다. Kang 등⁷⁾과 Bae 등⁸⁾은 교통사고 상해 환자의 한의과 치료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통사고 이후 한의과 치료 만족도를 조사한 Shin과 Park⁹⁾의 선행 연구가 있으나 전반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상을 급성기 환자로 제한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한약을 필두로 한 한의과 치료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본 연구를 설계하여, 교통사고 수상일 7일 이내 내원한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을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분당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 상해로 내원한 환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동의서를 취합하였다.

- 1) 성인(만 19세 이상) 환자 중 초진일이 수상일 7일 이내인 자
- 2) 사고 후 본원이 첫 진료인 자(본 사고로 타 병/의원을 다녀온 적이 없는 환자)
- 3) 초진 당일 증상에 맞는 탕약 처방을 10일치 받은 자
- 4) 참여하고 있는 다른 임상연구가 없는 자

조사 기간 동안 위 조건을 만족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교통사고 상해 환자는 620명이었다. 그 중 1) 초진일 기준 10일 경과 시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40명, 2) 초진일 기준 10일이 경과한 외래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윤리적 검토

본 설문조사 연구는 자생한방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JASENG 2020-05-002)을 받아 진행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설문은 한방병원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의 한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원내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이 설문을 구조화하고, 원내 의료의 질 향상팀의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다. 다양한 문항들을 구성하여 원내 한의사 10명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간 일관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생년월일, 성별, 직군 분류) 조사와 처방된 한약에 대한 인식 확인으로 구성하였다. 한약 관련 인식 조사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아니오’의 이분형 답변보다는 리커트 척도(5점형: 매우 그렇지 않다-그렇

지 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다양한 문항들에 대하여 호/불호, 동의/비동의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사유를 묻는 문항은 선택지 없이 오픈형 질문으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조사는 환자가 중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환자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사가 대인면접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EuroQol visual analogue scale (EQ-VAS) 척도를 사용하여 당일의 건강상태를 0 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확인하였다.

4.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한약

교통사고 상해 환자에게 처방된 탕약은 환자의 목, 허리, 어깨 등의 근골격계 통증은 물론 사고 후 동반되는 증상을 치료하며 瘀血의 빠른 배출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신의 치료와 안정을 찾는 데 효과가 있다.

한의사는 사고 후 발생한 증상과 그의 호악 여부(증상 호전/비호악)를 확인하고, 面色, 脈, 舌苔 등을 고려하여 寒凝血瘀證, 瘀熱互結證, 氣滯證, 氣虛證, 肝腎陰虛證, 濕痰阻滯證 등으로 변증 후 탕약을 처방하였다. 모든 탕약은 아침, 저녁 식사 30분 후 복용하도록 지도했으며, 탕약은 스프라이트 파우치를 포장 용기로 사용하여 1포에 100 mL를 정량으로 맞춰 제작하였다.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ized Patients (n=40)

Variables	N	%
Gender		
Male/female	20/20	50/50
Age (yrs)		
20~29	2	5.0
30~39	20	50.0
40~49	9	22.5
50~59	5	12.5
Over 60	4	10.0
Occupation		
Office workers	16	40.0
House wife, students and the others	6	15.0
Service, sales workers	8	20.0
Management positions, experts	10	25.0

5. 통계 분석

본 연구는 비실험 탐색적 단면조사로서 조사 연구 결과를 서술적 통계 분석하였다. 응답에 따른 하위 질문이 존재하고, 대상자의 응답 내용이 중요하므로, 표본 자체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였고, 복수 응답에 해당하는 문항은 복수로 처리하였다. 결과는 google 설문지(Google LLC, Mountain View, CA, USA), Microsoft Excel 2010 (ver 14.0; Microsoft, Redmond, WA, USA)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결과»»»»

1. 환자의 기본정보와 인구 사회학적 조사

1) 초진일 기준 10일 경과 시점에서 입원 중인 환자 40명(Table I)

성별은 여자 20명(50%), 남자 20명(50%)이었고, 직업군은 사무종사자 16명(40%), 관리직 및 전문가 10명(25%)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는 30~39세가 20명(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49세 9명(22.5%)이었다.

2) 초진일 기준 10일이 경과한 외래 환자 160명(Table II)

남자는 96명(60%), 여자는 64명(40%)이었고, 직업군

Table II.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ut-Patients (n=160)

Variables	N	%
Gender		
Male/female	96/64	60.0/40.0
Age (yrs)		
20~29	28	17.5
30~39	66	41.3
40~49	44	27.5
50~59	15	9.4
Over 60	7	4.4
Occupation		
Office workers	46	28.8
House wife, students and the others	31	19.4
Service, sales workers	36	22.5
Management positions, experts	39	24.4
Simple labor workers	8	5.0

은 사무종사자 46명(28.8%), 관리직 및 전문가 39명(24.4%), 서비스 판매 종사자 36명(22.5%), 기타 주부 학생 31명(19.4%) 순이었다. 연령대는 30-39세가 66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49세 44명(27.5%), 20-29세 28명(17.5%) 순이었다.

2. 한약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초진일 기준 10일 경과 시점에서 입원 중인 환자 40명(Table III)

처방받은 한약의 복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15명(37.5%), ‘매우 그렇다’ 11명(27.5%) 순으로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3명(7.5%)이었다. 증상에 맞게 처방된 한약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16명(40.0%), ‘매우 그렇다’ 13명(32.5%), ‘보통이다’ 7명(17.5%) 순으로 답했다.

처방받은 한약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에는 ‘보통이다’ 16명(40.0%), ‘그렇다’ 13명(32.5%) ‘매우 그렇다’ 4명(10.0%) 순으로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 5명(12.5%), ‘전혀 그렇지 않다’ 2명(5.0%)이 답한 경우도 있었다.

복용법에 맞게 꾸준히 복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16명(40.0%), ‘매우 그렇다’ 12명(30.0%)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렇지 않다’ 3명(7.5%), ‘전혀 그렇지 않다’ 1명(2.5%)의 경우도 있었다. 제 때 복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9명 중 7명(36.8%)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5명(26.3%)은 ‘복용하기 번거로워서’, 5명(26.3%)은 ‘맛이 없어서’, 2명(10.5%)은 ‘소화 장애(설사, 더부룩함 등) 때문에’라고 답했다.

입원 환자 40명 중 15명(37.5%)은 한약 맛이 ‘보통이다’고 답했고, 15명(37.5%)은 한약 맛이 ‘좋다’고 답했다. ‘별로다’는 7명(17.5%), ‘매우 별로다’는 3명(7.5%)이 있었고, ‘매우 좋다’고 답한 환자는 없었다. 후대의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13명(32.5%), ‘보통이다’ 12명(30%), ‘매우 그렇다’ 10명(25%) 순으로 많았다.

이번 사고로 본원에 내원하여 한약 처방을 받기 전, 한약을 복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환자는 22명(55%)이었고, 이전에 복용했던 한약의 종류는 보약(16명, 72.7%), 치료 목적(4명, 18.2%), 다이어트(2명, 9.1%) 순으로 나

타났다. 이번 사고로 처방받은 것이 첫 한약 복용인 환자 18명 중 13명(72.2%)는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5명(27.8%)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전에 처방 받아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추후 교통사고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내원 시 한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1명(27.5%), ‘그렇다’ 11명(27.5%), ‘보통이다’ 8명(20%), ‘그렇지 않다’ 4명(10%),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5%)로 확인되었다.

현재 교통사고 이후 처방은 탕약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다른 제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지 묻는 질문에는 중복 응답으로 ‘현재 탕약(물약) 그대로’ 19명(47.5%), ‘짜먹는 스틱형’ 11명(27.5%), ‘환 형태’ 10명(25%), ‘알약(캡슐) 형태’ 15명(37.5%)로 답했다. 본원에서는 교통사고 후 내원한 환자에게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과 함께 침 치료, 약침 치료, 추나 치료, 부항 치료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효과가 좋다고 생각된 치료는 중복 응답으로 침 치료 19명(47.5%), 약침 치료 18명(45%), 추나 치료 12명(30%), 부항 치료 9명(22.5%), 한약 7명(17.5%) 순으로 한약이 가장 낮았다.

2) 초진일 기준 10일이 경과한 외래 환자 160명(Table IV)

통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처방받은 한약의 복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서는 ‘그렇다’ 82명(51.3%), ‘매우 그렇다’ 53명(3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증상에 맞게 처방된 한약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58명(36.3%), ‘보통이다’ 31명(19.4%), ‘그렇지 않다’ 25명(15.6%) 순으로 답했다. 증상 호전에 한약이 도움이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68명(42.5%), ‘그렇다’ 64명(40%) 순으로 많았고, ‘매우 그렇다’는 16명(10%), ‘그렇지 않다’ 10명(6.3%),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3%)으로 조사되었다.

복용법에 맞게 꾸준히 복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87명(54.4%), ‘매우 그렇다’ 39명(24.4%), ‘보통이다’ 30명(18.8%) 순으로 많았다. 제 때에 복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82명 중 58명(70.7%)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소화 장애 때문에’라고 답한 환자는 9명(11%), ‘맛이 없어서’는 7명(8.5%)이었다.

통원 환자 160명 중 11명(6.9%)은 한약 맛이 ‘매우 좋다’고 답했고, 34명(21.3%)은 한약 맛이 ‘좋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95명(59.4%), ‘별로다’는 19명(11.9%), ‘매

Table III. Perception of Koean Herbal Medicine in Hospitalized Patients (n=40)

Variables	N	%
Whether know how to take Korean herbal medicine		
Strongly agree	11	27.5
Agree	15	37.5
Neither disagree nor agree	9	22.5
Disagree	2	5.0
Strongly disagree	3	7.5
Whether taken at the right time (BID, 30 minutes after meals)		
Strongly agree	12	30.0
Agree	16	40.0
Neither disagree nor agree	8	20.0
Disagree	3	7.5
Strongly disagree	1	2.5
Reason for not taking on time		
Difficult to match the right time	7	36.8
Cumbersome to take	5	26.3
Unpalatable taste	5	26.3
Digestive disorders	2	10.5
How Korean herbal medicine taste		
Strongly bad	3	7.5
Bad	7	17.5
Neither bad nor good	15	37.5
Good	15	37.5
Strongly good	0	0
Whether convenient to carry		
Strongly agree	10	25.0
Agree	13	32.5
Neither disagree nor agree	12	30.0
Disagree	3	7.5
Strongly disagree	2	5.0
Whether taking Korean herbal medicine helped improve symptoms		
Strongly agree	4	10.0
Agree	13	32.5
Neither disagree nor agree	16	40.0
Disagree	5	12.5
Strongly disagree	2	5.0
Experience of taking Korean herbal medicine before our hospital Prescribed medicine		
Yes/No	22/18	55.0/45.0
If so, purpose of prescription		
Restorative	16	72.7
Purpose of treating illness	4	18.2
Purpose to lose weight	2	9.1
Purpose of treating symptoms from traffic accident	0	0

Table III. Continued

Variables	N	%
If not, reason why haven't taken Korean herbal medicine before		
Feel needless	5	27.8
Feel expensive	13	72.2
Preferred form if the formulation changed*		
The current hot potion remain	19	47.5
Stick type	11	27.5
Pills	10	25.0
Capsule	15	37.5
Willing to take a prescription at a later visit		
Strongly yes	11	27.5
Yes	11	27.5
Neither yes nor no	8	20.0
No	4	10.0
Strongly no	6	15.0
Treatment feel effective after traffic accident*		
Acupuncture	19	47.5
Herbal acupuncture therapy	18	45.0
Chuna treatment	12	30.0
Cupping	9	22.5
Korean herbal medicine	7	17.5
Recognition of the therapeutic effect		
Strongly yes	13	32.5
Yes	16	40.0
Neither yes nor no	7	17.5
No	2	5.0
Strongly no	2	5.0

*multiple response were allowed.

우 별로다'는 1명(0.6%) 이었다. 휴대의 편리성 여부 질문에는 '그렇다' 81명(50.6%), '매우 그렇다' 54명(33.8%), '보통이다' 16명(10%), '그렇지 않다' 8명(5%) 순이었다.

외래 환자 160명 중 본원에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이번에 받은 처방이 첫 한약 복용이라고 답한 환자는 82명(51.3%)이었고, 보약은 42명(52.5%), 질환 치료 목적 21명(26.3%), 다이어트 8명(10%), 이전 교통사고 9명(11.3%) 등의 목적으로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받은 처방이 첫 한약 복용이라고 답한 환자는 78명 중 15명(46.9%)은 '한방 진료가 처음이라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12명(37.5%), '비싸다고 생각해서' 5명(15.6%) 순으로 응답하였다.

추후 교통사고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내원 시, 한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는 '그렇다' 89명(55.6%), '보통이다' 36명(22.5%), '매우 그렇다' 24명(15%), '전혀 그렇지 않다' 6명(3.8%), '그렇지 않다' 5명(3.1%) 순으로 대답하였다.

다른 제형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지 묻는 질문에는 중복 응답으로 '현재 탕약(물약) 그대로'가 58명(36.3%), '짜먹는 스틱형' 43명(26.9%), '알약(캡슐) 형태' 32명(20%), '환 형태' 27명(16.9%) 순으로 답했다.

교통사고 후 치료 중 어떤 것이 효과가 좋았는지 묻는 문항에는 중복 응답으로 약침 치료 95명(59.4%), 침

Table IV. Perception of Korean Herbal Medicine in Out-Patients (n=160)

Variables	N	%
Whether know how to take Korean herbal medicine		
Strongly agree	53	33.1
Agree	82	51.3
Neither disagree nor agree	20	12.5
Disagree	3	1.9
Strongly disagree	2	1.3
Whether taken at the right time (BID, 30 minutes after meals)		
Strongly agree	39	24.4
Agree	87	54.4
Neither disagree nor agree	30	18.8
Disagree	3	1.9
Strongly disagree	1	0.6
Reason for not taking on time		
Difficult to match the right time	58	70.7
Cumbersome to take	8	9.8
Unpalatable taste	7	8.5
Digestive disorders	9	11.0
How Korean herbal medicine taste		
Strongly bad	1	0.6
Bad	19	11.9
Neither bad nor good	95	59.4
Good	34	21.3
Strongly good	11	6.9
Whether convenient to carry		
Strongly agree	54	33.8
Agree	81	50.6
Neither disagree nor agree	16	10.0
Disagree	8	5.0
Strongly disagree	1	0.6
Whether taking Korean herbal medicine helped improve symptoms		
Strongly agree	16	10.0
Agree	64	40.0
Neither disagree nor agree	68	42.5
Disagree	10	6.3
Strongly disagree	2	1.3
Experience of taking Korean herbal medicine before our hospital Prescribed medicine		
Yes/No	82/78	51.3/48.8
If so, purpose of prescription		
Restorative	42	52.5
Purpose of treating illness	21	26.3
Purpose to lose weight	8	10.0
Purpose of treating symptoms from traffic accident	9	11.3

Table IV. Continued

Variables	N	%
If not, reason why haven't taken Korean herbal medicine before		
Feel needless	12	37.5
Feel expensive	5	15.6
New to herbal treatment	15	46.9
Preferred form if the formulation changed*		
The current hot potion remain	58	36.3
Stick type	43	26.9
Pills	27	16.9
Capsule	32	20.0
Willing to take a prescription at a later visit		
Strongly yes	24	15.0
Yes	89	55.6
Neither yes nor no	36	22.5
No	5	3.1
Strongly no	6	3.8
Treatment feel effective after traffic accident*		
Acupuncture	70	43.8
Herbal acupuncture therapy	95	59.4
Chuna treatment	66	41.3
Cupping	17	10.6
Korean herbal medicine	23	14.4
Recognition of the therapeutic effect		
Strongly yes	23	14.4
Yes	58	36.3
Neither yes nor no	31	19.4
No	25	15.6
Strongly no	23	14.4

*multiple response were allowed.

치료 70명(43.8%), 추나 치료 66명(41.3%), 한약 23명(14.4%), 부항치료 17명(10.6%) 순으로 응답하였다.

3. EQ-VAS

EQ-VAS는 환자가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 점수를 확인하는 척도로, 100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상태, 0은 최저의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 환자에게 0부터 100까지 그려진 눈금자를 보여주고, 건강 상태를 점수화하여 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초진일에 1회, 설문조사 시 1회, 총 2회 진행하였다.

초진일에 EQ-VAS 평균은 48.0이었던 40명의 입원 환자군은 입원 유지 중인 10일차에 평균이 64.5로 증가했다.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 160명의 초진일 EQ-VAS 평균은 46.125이었고, 초진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는 평균이 60.31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찰»»»»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수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교통사고 전체 건수와 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6년 1조 6,586억 원에서 2018년 1조 9,76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¹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한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었고,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과의 비율은 2015년 23%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는 41%를 차지하였다¹¹⁾.

타박과 염좌를 주소로 하는 경상 환자군의 비중이 지난 2015년 기준 93%였던 것에서 2017년 93.9%, 2019년 94.3%로 증가했는데¹²⁾, 이들에게서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본다면 한의과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hin 등⁹⁾과 Park 등¹³⁾의 연구에서 교통사고 후 한의과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의과 치료가 교통사고 상해 환자에게 효과가 좋으며 환자의 호응도 또한 높음을 반증한다.

한의사는 교통사고 상해를 落傷, 打撲, 蓄血, 血結, 瘀血 등으로 보고, 氣血을 疏通시켜 瘀血을 除去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침, 약침 치료, 부항요법, 추나, 도인요법, 한방물리요법, 한약 처방 등 다양한 치료를 환자 맞춤형으로 접근하게 된다. 한의과 진료는 교통사고 상해로 유발된 증상과 이로 인한 후유증 관리에 적합하며, 이는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증가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교통사고 상해 환자의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는 한의과 진료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교통사고 상해 환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한의과 진료 서비스의 현 위치 파악과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 Park 등¹⁴⁾, Bae 등⁸⁾은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SERVQUAL 척도를 바탕으로 한의과 진료에 맞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는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점차 표본을 확대하고 지역을 넓혀 조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나, 표본을 구성함에 있어서 수상일 기준 등을 활용하여 환자를 구분하여 표본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교통사고 상해 환자에 대한 한의과 치료 중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약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시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방 병원에서 연구대상 표본을 제한하고 한약 중심의 설문

을 진행함으로써 환자들의 당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자료를 늘리고 한약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조사 결과, 남녀 성비는 비슷하였고, 30-39세의 비율이 43%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후 첫 치료로 한방 치료를 고려하는 환자의 연령대가 낮은 편인데, 이는 양방 의료진과 협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본원의 특성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 상해 환자 치료에 있어서 한방 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한방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높아진 결과로 생각한다.

한약 인식도 설문조사는 비교적 쉽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 처방받은 한약의 복용법과 치료 효과는 대부분의 환자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전체 응답자의 5%는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약 처방 시에 한의사가 복용법과 처방 목적에 대해 환자들에게 여러 번 주시시키는 것과 더불어 한약의 처방 목적 등 환자가 받은 당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처방받은 당약은 대부분의 환자가 휴대성이 편리하고, 맛이 괜찮다고 답하였지만 15%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다양한 제형의 처방이 가능하다면 다른 제형의 처방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4%임을 고려해 볼 때, 환자 맞춤형 치료라는 한방 치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제형의 다양화 등을 통해 환자의 한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후 받은 처방이 첫 한약 복용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추후 내원 시 한약 처방이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는 질문에는 전체의 68% ('매우 그렇다' 35명, '그렇다' 100명) 환자가 한약 처방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증상 개선과 한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환자의 재내원 의향과 추후 한약 처방에 대한 용의가 있다는 응답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통사고로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의과 치료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한약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문 시행 전에 환자에게 한약 관련 인식 조사임을 사전에 고지 후 시행했음에도 한약이 증상 호전

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환자가 전체의 10%를 차지하였고, 교통사고 상해 치료 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치료로 한약을 선택한 응답은 8% (30건)에 그쳤다. 한약에 대한 인식도 조사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약을 선택한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환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통해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EQ-VAS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로 인터뷰 당일의 건강상태를 0과 100 사이로 표시해달라는 질문이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그로 인한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간단한 직접적 방법이다¹⁵⁾.

EQ-VAS는 건강상태를 환자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설문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초진일 200명의 EQ-VAS를 이용한 건강 상태 점수 평균은 46.84점이었고, 초진 진료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61.93점으로 올랐으며, 200명의 환자 중 189명 (94.5%)에서 초진일 대비 높은 건강 상태 점수를 주었다. 이는 치료 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EQ-VAS가 통원 환자는 130% 증가한 반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초진일 대비 134.34%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입원 치료가 환자의 건강상태 회복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아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한약에 집중한 설문지를 자체 개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인식도 조사에 사용된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들이 주제에 대해 모두 동일한 수준의 기여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문항별 가중이나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가늠은 어려운 서열 측정치라는 단점이 있으나, 응답을 취합함에 있어 응답자가 선택한 응답을 직접 활용하여 수치화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였고,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은 연구로 볼 수 있다. 원내 대면 설문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한방 치료 및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을 가능성 때문에 뼈달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한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여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단일 병원에서 시행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행

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성남시 소재의 병원에서 시행되어 인구 사회학적 면에서 다양한 표본이 모집되었다고 생각한다. 추후 다양한 지역의 병원에서 표본을 늘리고, 한방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내원하게 된 동기 등의 문항을 추가하고, 문항 별로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 의미있는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단일 치료보다 복합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으므로¹⁶⁾, 다양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방 치료 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약을 제때에 복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환자의 10%는 ‘소화 장애(설사, 더부룩함)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는데 복용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형의 다양화와 더불어 기존의 보험 엑스산제 등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상일 7일 이내 내원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중심으로 한 한방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로 급성기 환자에 대한 한방 치료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한방치료, 특히 한약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방 치료 중 한약의 제도적 보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설계된 본 설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상해 후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약을 필두로 한 한방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분당 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 상해 후 수상일 7일 이내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초진일 기준 10일 경과 시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40명, 통원 치료 중인 외래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한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환자가 휴대성이 편리하고, 맛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교통사고 후 받은 처방이 첫 한약 복용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48%를 차지하였으며, 68%가 추후 한약 처방을 받으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교통사고 상해로 받는 한약 처방은 이전에 한약을 복용해본 적 없는 환자에게 한방 의료서비스 접근에 물꼬 트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약 복용이 증상 개선에 보통 이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환자는 90%에 달했는데 이는 한약의 제도적 보장 강화에 당위성을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첫 내원 당시 EQ-VAS를 이용하여 평가한 건강상태는 46.84이었으나, 진료받기 시작하고 1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EQ-VAS는 61.93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한방 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상해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Auto Insurance Medical Expense Statistics [Internet] 2019 [cited 2020 Jun 24] Available from: <https://www.hira.or.kr/co/ebook/list.do?pgmid=HIRAA030402000000>.
2.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4th ed. Paju:Koonja Publishing. 2015:236-9.
3. Kim SJ, Kang JH, Park JW, Hong SY, Heo DS, Yoon IJ, Oh MS.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admission patients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 *Journal of Pharmacopuncture*. 2007;10(2):133-7.
4. Jeon TD, Yoon IJ, Oh MS, Heo DS, Lee HG, Hong SY. The effectiveness of the herb-medication based on abdominal diagnosis and Danggisoo-san (Dangguixu-san) herb-medication for the traffic accident patients. *J Korean Med Rehabil*. 2007;17(4):209-18.
5. Kim KH, Choi JB. The clinical study on 51 cases with traffic accident. *J Korean Med Rehabil*. 2001;12(4):91-9.
6. Kim KH, Choi YS, Nam DW, Kim JI, Cho KH, Choi DY, Lee JD. A clinical study on the effect of acupuncture and bee-venom acupuncture for patients with chronic whiplash injury.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2006;23(6):146-52.
7. Kang SY, Park JW, Shin HG, Shin JH, Lee SY, Koh YJ, Youn HJ, Ryu HS, Sul JU. Survey on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131 cases by traffic accident.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2012;29(3):67-75.
8. Bae KJ, Jeong JW, Song MY, Choi JB, Kim ST, Kwon MG, Sul JU, Na SY, Kim SJ. Survey on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103 cases by traffic accident. *J Korean Med Rehabil*. 2015;25(3):65-79.
9. Shin HR, Park KT. A survey on satisfaction for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 237 traffic injury patients. *J Korean Med Rehabil*. 2018;28(3):67-78.
10.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8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expense statistic.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9:6.
11.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Expense Statistics [Internet] 2017 [cited 2020 Mar 25]. Available from: <https://opendata.hira.or.kr/op/opc/selectAdscDamtStcSvcInfo.do>.
12. Park JO, Jung H, Heo DS. Clinical study of the effects of gwibi-tang and danggwisusan on traffic accident patients with acute cervicolumbar disorder. *J Korean Med Rehabil*. 2015;25(3):81-90.
13. Park SY, Lee SH, Heo I, Hwang MS, Kim KW, Cho JH, Park KS, Ha IH. A survey on patient's experie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perception of health care system for developing of a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raffic injuries. *J Korean Med Rehabil*. 2020;30(2):139-52.
14. Park DS, Pi CH, Lee JH, Kong JC, Baek DG, Song YS, Kwon YM. Survey of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care for traffic accident patients; 35 cases report. *J Korean Med Rehabil*. 2008;18(3):99-118.
15. Whitehead SJ, Ali S. Health outcomes in economic evaluation: the QALY and utilities. *Br Med Bull*. 2010; 96:5-21.
16. Song YI, Jin KS, Shin HL, Yoon IJ, Choi SH, Oh MS. The clinical analysis of traffic accident patients treated by oriental medicine. *J Korean Med Rehabil*. 2005; 15(2):77-89.

Appendix 1. 설문 조사

저희 분당 자생한방병원은 목, 허리, 어깨 등의 근골격계 통증은 물론 사고 후 동반되는 증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증상에 맞게 처방 받으신 한약은 어혈의 빠른 배출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신의 치료와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환자분들의 한약 복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진료를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환자분의 직업군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및 전문가	<input type="checkbox"/>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판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농림, 어업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장치, 기계조립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군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부, 학생	
환자분의 연령대	<input type="checkbox"/> 20~29	<input type="checkbox"/> 30~39	<input type="checkbox"/> 40~49	<input type="checkbox"/> 50~59	<input type="checkbox"/> 60대 이상
치료 형태	<input type="checkbox"/> 입원 치료 중		<input type="checkbox"/> 통원 치료		

1. 처방 받으신 한약의 복용법을 알고 계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처방 받으신 한약의 치료효과를 알고 계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처방 받으신 한약 복용이 증상호전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복용법에 맞게 꾸준히 복용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제 때 복용하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가능)

맛이 없어서 소화 장애 때문에 (더부룩함, 설사 등)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복용하기 번거로워서 기 타

5. 복용하신 한약의 맛은 어떠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처방 받으신 한약은 휴대가 편리했나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저희 병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 이전에, 한약 복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있으시다면 어떤 목적의 처방이었는데 기재 부탁드립니다.

복용해보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예 (예: 보약, 피부 치료 목적 등)

아니오 사유: _____

8. 현재 처방 되고 있는 한약은 탕약(물약)입니다.

다른 제형으로 약 처방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가 좋으시겠어요? (복수응답가능)

- 짜먹는 스틱형
 환
 알약 형태
 현재 탕약(물약) 그대로
 기타

9. 추후 내원 시 한약 처방이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처방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사고 사고 후 치료 중에서 어떤 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느끼셨나요?

(복수응답가능)

- 침 치료
 추나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치료
 한약

11. 그 밖의 한약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주시면, 더 나은 진료를 위하여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Appendix 2. EQ-VAS

옆에 그려진 눈금자에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고,
0은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금자에 오늘의 건강 상태를 X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눈금자 상에 표시한 숫자를 아래 박스에 기입해 주십시오.
오늘의 건강 상태 = □

